

지난해 전주시 대중교통 이용객 대폭 증가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 · 효율적 노선 개편 · 마을버스 · 모심택시 확대 등 효과

지난해 전주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바로온', 농촌동과 전주시내 주요 거점을 오가는 모심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전주시민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출·퇴근 시간대 편의 증진과 이용객 중심 효율적인 노선 개편, 마을버스 및 모심택시 확대 등의 효과로 1년 전보다 대폭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전주시내버스 누적 이용객은 약 5089만 명으로, 2022년(약 4839만 명)보다 약 5.1% 증가했으며, 전주시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임을 입증했다.

같은 기간 마을버스 이용객도 1년 전(39만 명)보다 43% 증가한 56만 명으로 집계됐다. 또, 모심택시 이용객은 2022년 2만1000명에서 지난해 2만7000명으로 약 28% 증가했다.

이와 관련 도심의 승용차 운행 대수

는 22년도에 비해 23년도에는 감소되진 않았지만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의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대중교통 이용 증가와 함수관계에 인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시내버스 이용객의 경우 지난 2019년 4945만 명에서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에는 3898만 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4839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시는 대중교통 기반 시설·환경 조성과 이용객 중심의 효율적인 노선 개편 시행, 교통비 절감을 위한 정기권 등이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시는 지난해 소음과 진동이 적어 승차감이 좋고 공해 배출을 최소화한 저소음 저진동 버스를 도입하고, 모심택시 확대 등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내버스에 되도록 했다.

시는 지난날 시행한 삼례 방면 노선 개편에 이어 시내버스 전주-원주 지간

입해 현재 총 90대를 운행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교통 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도 88대의 친환경 수소저상버스를 추가 도입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78대의 수소시내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내버스 공급 확대를 위해 전주-원주 지간선제 노선개편을 통해 주요 노선의 배차간격을 줄여 시민들의 이동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편의 제공에도 힘썼다.

동시에 시 외곽 농촌마을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마을버스 '바로온' 11대의 모심택시 9대 추가 확대 공급함으로써 수요에 맞는 운영체계를 확립하기도 했다. 또, 예비차를 활용해 밀집 노선에 탄력배차제를 시행하는 등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내버스에 되도록 했다.

시는 지난날 시행한 삼례 방면 노선 개편에 이어 시내버스 전주-원주 지간

선제 노선개편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지간선제 노선개편 지역을 하반기에는 봉동·용진방면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시내버스 지간선제 3단계 노선개편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는 그동안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 및 난폭운전 개선을 위해 전주 5개 시내버스 운전원의 부당행위와 난폭운전 등에 관한 민원사항을 운전원에게 공개하고, 상·하반기 서비스 평가를 통해 전년 대비 시민불편 민원을 11% 감소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심규문 대중교통본부장은 "전주시는 승강장 냉·온열 편의시설 설치와 수소시내버스 적극 도입, 전주시 대중교통 혁신을 이끌 BRT 도입 추진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전주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대중교통 정책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일상생활 속 걷기 운동 함께해요”

전주시보건소, 모바일 건강걷기 10일간 10만보 참여자 모집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가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상생활 속 걷기 실천 운동을 전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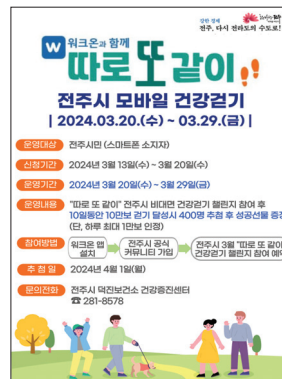
덕진보건소는 생활 속 걷기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비대면 건강걷기 프로그램인 '모바일 건강걷기 10일간 10만보 챌린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걷기 챌린지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휴대전화에 '워크온' 앱을 설치한 후 전주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챌린지 시작일인 오는 20일까지 챌린지 '예약하기' 또는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야 참여할 수 있다.

앱 설치 시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을 확인한 후 동의해야 하며, 커뮤니티에서 '예약하기' 또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챌린지 참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덕진보건소는 10일간 10만보(1일 1만보까지 인정)의 걷기 목표를 달성한 시민 중 400명을 추첨해 경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걷기 챌린지를 총 6회 열 계획으로, 3월과 5월, 10월은 덕진보건소에서, 오는 4



월과 9월, 11월은 전주시보건소에서 각각 운영한다. 경품도 해당 각각 400명씩 추첨해 증정될 예정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걷기 운동으로 걷기 문화가 정착·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생활 속 걷기 실천을 유도해 비만 등 만성질환 예방을 돕는 등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바일 건강걷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063-281-6333~6336) 또는 덕진보건소(063-281-8578)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복지재단, 청소년 교통복지 위한 통학비 지원

저소득가정 중 2km 이상 원거리 통학 고등학생 100명에게 24만원

(재)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은 12일 취약계층 자녀의 학업 장려 및 청소년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100명에게 통학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고등학생 중 통학 거리가 2km 이상이어서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

량을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24만 원으로, 재단은 시내버스 편도 기준으로 청소년 요금 10개월분을 3월과 오는 9월 두 차례로 나누어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복지재단은 지난해부터 고물가 시대 저소득가정의 경제

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통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가정 청소년 통학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454명의 청소년이 지원을 받았다.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은 “이 사업을 통해 원거리를 통학하는 고등학생들의 학업 의지를 높이고, 보다 안전한 통학 환경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복지재단은 어려움이 있는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모금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눔에 관심 있는 많은 전주시민과 기업, 단체들의 기부 참여(문의 전화 063-281-0030)를 기다리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완산구, 대학교 급식소 · 학교급식 납품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위생점검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배희곤)는 개학 대비 대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및 급식에 제공되는 완제품 등 사전점검을 통한 식재료 안전관리를 위하여 13~15일까지 대학교 집단급식소 및 학교급식 납품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2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산구에서는 2023년에도 봄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교에 납품하는 식품판매업과 집단급식소 15개소를 방문하여 위생적 취급기준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식재료 안전성, 위생적 취급기준 및 보존식 보관 의무 등의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이와



전주시 완산구는 13~15일까지 대학교 집단급식소 및 학교급식 납품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2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함께 식중독 발생 사전 방지 및 안전한 식생활문화 개선을 위한 식중독 예

방 교육·홍보도 병행했다. 완산구청 관계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진행하는 이번 점검의 주요 점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생적 취급기준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식재료 안전성, 위생적 취급기준 및 보존식 보관의무 중점 점검 △식중독 예방관리 컨설팅 실시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홍보 △식기류 세척·소독 및 잔류세제 제거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배희곤 완산구청장은 “대학교 급식소 및 학교급식 납품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식중독 예방과 함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덕진구 송천2동 통장협의회는 지난 11일 우리동네를 가꾸기 위한 송천동 관내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전주 송천2동 통장협의회, 환경정비 추진

전주시 덕진구 송천2동 통장협의회(회장 채봉덕)는 지난 11일, 우리동네를 가꾸기 위한 송천동 관내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날 환경정비 활동을 위해 통장협의회와 송천2동주민센터 직원 등 50명이 참석하여 다농마트 인근 산책로를 청소하고 도로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채봉덕 송천2동 통장협의회장은 “바쁜 일중 속에서도 환경정비 활동에 참

여하신 통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송천2동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꾸준히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송천2동 강주옥 동장은 “송천2동을 위해 늘 봉사해 주시는 통장협의회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동네가 가꾸기 운영을 통해 자생단체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화 활동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송천2동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4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부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